



기상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뛰다

조주영/기상청 예보관



누구보다도 봄의 전령을 가장 먼저 전해 받는 사람이 기상청 예보관이다. 일상 생활, 이벤트, 스포츠, 마케팅, 국가적 전략,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상 정보도 기상청 예보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 낸 것이다.

기상청의 30여 명 예보관은 순간 순간 변화하는 날씨를 추적하려고 24시간 근무를 한다. 일근, 석근, 야근, 비번 순으로 이어지는 교대 근무를 하면서 오늘, 내일, 모레(단기 예보), 일주일(주간 예보), 장기예보를 여러 가지 통신매체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필자는 단기 예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날씨 알아 맞추기를 직업으로 선택한지 22년이 지나, 작년에 '여성으로는 처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예보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지역기상 예보용 수치 모델을 만드는 연구 생활을 청산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싶어서 고된 예보관 생활을 자청하게 되었다. 좀 더 솔직히 기상인의 꽃인 예보관이 되어 진짜 기상인이 되고 싶었다.

이런 의욕 속에 출발한 예보관 생활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지구 전체의 대기 흐름 속에서 서울의 날씨를 알아 맞춘다는 것이 어려웠다. 열대 지방처럼 계속 더운 날씨가 아닌,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다루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여러 가지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정해진 예보 발표 시간에 맞추기 위해 매우 제한된 시간에 사투하는 시간의 연속. 남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생체의 리듬을 무시하며 긴장감 속에 악기상을 예보하던 수많은 날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 없이는 못했을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첫 사건은 예보관 생활을 시

작한 겨울, 서울에 내린 대설이다. 석근을 마치고 돌아와 새벽에 일어나 보니, 서해에서 발생한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내습한 것이다.

깜짝 놀라 기상청으로 달려가, 멀쩡하던 저널과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외에도 밤새 고민해 만든 예보가 어긋날 때의 허탈감, 칼 같은 예보의 희열감 등, 이 모든 희노애락이 나를 예보관으로 견재토록 하는 원동력이다.

남성들도 힘들어 여성의 근무 불모지로 인식되어 온 분야에서, 가사나 체력이 남성보다 열세인 조건에서 지내온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 지난 여름의 조기 호우 예보, 정확한 태풍 예보, 최근의 눈 예보 등 정확한 예보로 기상 재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호우와 태풍 발생 시 3주 동안 계속된 24시간 맞교대로 쓰러질 것 같은 공포감, 4일에 한번씩 반복되는 야근 후 백주 대낮에 커튼치고 전화선 뽑고 잠자는 일,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일이 힘들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왜 계속하느냐고 물으면, 보람되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상청의 예보관의 한 사람으로 두 가지 바램이 있다.

하나는 우리 나라도 기상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투자로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한 국가적 방재 체제의 구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 의식의 선진화로 기상 정보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보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제 하늘을 탓하고, 어긋난 예보를 탓하지 말자. 자연 앞에 겸손하고, 자연이 보여주는 기상현상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